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39) (7/3/2021)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22 장 인간의 비참한 상태, 3-5 절

시 25:17 -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롬 8:22 -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롬 8:5 -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벧전 1:4 -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히 11:26 -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롬 13:11 -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고후 5:4 -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3.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육신”이 꼭 필요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몹시 부담스럽고 괴로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소서”(시 25:17). 반면에, 자기 자신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비참하고 타락한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롬 8:22). 그런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해서든, 아니면 구걸을 해서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겨우 마련해서 근근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러한 삶에 애착을 갖고 매달리는 까닭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세상에 폭 빠져서, 오직 육신적인 것들만을 좋아하고,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흥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미혹되고 흘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롬 8:5). 그들은 지금도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쓸데없는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고서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모든 경건한 벗들은, 육신을 기쁘게 해 주는 것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눈길을 주지 않았고, 도리어 오로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열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할 수 없었습니다(벧전 1:4; 히 11:26).

5. 형제여, 신령한 사람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도 있고 기회도 주어져 있는데(롬 13:11; 히 10:35), 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즉시 일어나서, 당장 행동을 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이 행하여야 할 적기이고, 지금이 싸워야 할 적기이며, 지금이 삶을 변화시킬 좋은 적기이다.” 괴롭고 힘들 때, 그 때가 바로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처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시 66:11). 온 힘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는다면,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도 없고, 힘들고 괴로운 것 없이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갖 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순수한 상태를 잃어버림으로써, 진정으로 복된 삶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최악이 지나가고, “죽을 것이 생명이 삼킨 바 되게”(고후 5:4) 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과 해설:

이 땅에서의 육신적 삶은 하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큰 짐으로 다가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의 것 보다는 이 땅의 것에 애착을 가지고 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이 땅의 것은 기쁨이요 하늘의 것이 오히려 부담일 수 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곤고함을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함으로 영적인 자유와 만족을 누리지는 못한 채 육신의 억압과 고통 속에 늘 갇혀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본향으로 삼으며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갈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감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이 땅의 것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달콤함을 느낄지는 몰라도 갈수록 느끼는 공허감과 내적 결핍으로 인해 점점 더 고통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사 55:1-2 -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들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시편에서도 분명히 선포되어 있다.

시 34:8-10 - 8.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36:7-9 - 7.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8.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단호한 결단과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이고,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 사랑을 실천하고 삶을 바꿀 수 있는 때와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는 지금 충실하며, 지금 실천하고, 지금 변화해야 한다. 지금 바꾸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 고후 6:2 -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문제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나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욕심과 유혹에 약할 뿐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우리의 육신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결단과 노력을 방해하며, 영적 각성과 진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것이다. 영성생활에서의 현실의 안주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임을 알아야 한다. 영적인 퇴보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난다.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사역자의

영향력은 감퇴할 수 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성도들의 신앙과 섬김과 봉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균열이 올 수 있다. 결국은 믿음과 영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과 영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했다.

딤후 4:7-10 -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며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도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이기며, 이 땅에 고정된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자. 비록 힘들지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지금을 바꾸고 오늘을 바꾸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자.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은 놀라운 변화 심령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맺어야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우리를 밧줄로 묶는 것 같은 영적 나태와 침체를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영혼으로 일어나 나 자신을 바꾸고, 오늘을 바꾸며,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 온 세상으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력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